

삼성미술관 리움 개관 10주년 기념전 : 『교감(交感)』

시공간을 넘나들며 관람객과 교감하는 대규모 전시
상설 전시실, 기획 전시실을 아우르는 첫 전관(全館) 전시

2014. 8. 28 ▶ 2014. 12. 28

리움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60-16
T. 02. 2014. 6901

삼성미술관 Leeum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리움 개관 10주년 기념전 : 교감(Beyond and Between)』을 8월 19일(火)부터 12월 21일(日)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Leeum 개관 이후 처음 열리는 전관(全館) 전시로 한국 고미술을 전시하는 MUSEUM 1, 한국과 외국의 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MUSEUM 2, 기획전시실인 Black Box와 Ground Galley, 로비 공간을 <교감(交感)>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구성한 대규모 기획전이다.

한국 고미술 상설 전시실 MUSEUM 1은 '시대교감(時代交感)'을 주제로, 우리 고미술의 대표적 소장품과 현대미술 작품을 함께 전시하여 시간을 초월한 예술작품 간의 교감을 시도한다. 현대미술 상설전시실 MUSEUM 2에서는 기존 소장품 전시의 지역과 연대기에 따른 구분을 지양하고, 동시대 미술의 동양과 서양간 예술적 교감을 '동서교감(東西交感)'이라는 주제로 다룬다.

한편, 기획전시실에서는 '관객교감(觀客交感)'을 주제로 하여 소통과 참여를 극대화하는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현대미술의 변화를 담아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 더욱 친근한 미술관으로 다가서고자 하는 리움의 의지를 반영했다.

전시 연계 강연회는 리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출판 작가들의 육성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형식으로 총 5회가 진행된다. 또한 다른 관람객들과 전시에 대한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프로그램', 청소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나만의 리움 지도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별첨2 참조)

삼성미술관 리움은 2004년 개관 이래 전통과 현대, 한국과 외국을 아우르는 폭넓은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국 미술을 세계 미술사의 맥락 안에서 읽어 내고, 지역, 장르, 시대를 초월하여 새로운 가치들을 폭넓게 담아 왔다. 개관 10년을 맞이하여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경향들을 보다 유동적으로 수용하고 관객과 가까이 소통하는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예술과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박서보_로니혼-아그네스 마틴

구독신청 : 010-2207-0683